유사인용문의 화법 구조

김종현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he Attitudinal Force of Pseudo-Quotation Sentences in Korean

Jong-Hyun Kim
Dept of English, Sogang University

요 약

청자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1인칭 화자는 {X, Y, 말했다}의 인용구조를 갖추지 않은 '[...]고'의 '유사인용문'을 사용하여 주관적 관점을 표현한다. '-다고'로 종결되는 유사인용문 형식이 인용문의 화법과 유사한 기저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화법구조상에서 관점문과 보고문의 의미적 속성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유사인용문의 발화 효과와 화자의 발언 의도를 설명한다. 화자가 취하는 관점의 선택에 따라 1인칭 화자인 [나] 이외에 다른 제3의 주체, 사회적 구속력 등이 화자의 배경지식에 자리잡는 것을 가능세계의 논리적 분할의 측면에서 구분하고 이것이 유사인용문 화자의 발언 동기에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화자의 단언적 태도와 완곡의 태도가 각각 실현되는 것임을 보인다.

1. 서 론 [1]

'[X가 Y에게 [...]고 말했다]'의 구문 형식에서 보문소 '고'가 이끄는 인용절의 특성에 관해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인용문 연구에서 취급된 문제들을 더 깊이 다루려는 시도를 배제하고,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유사인용문'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화자가 청자를 직접 대면하고 말할 때 {X, Y, 말했다}의 인용구조가 없이 다만 '[...]고'의 발화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유사인용문'(혹은 '고-종결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다고'로 종결되는 '[...]고'(=이하 '고-종결문'이라 부르기로 함) 형식의 발화는 화자의 주관적 관점을 반영할 때가 많으며 {X, Y, 말했다}의 의미가 복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흔히 있다는 점에서 간접인용법의 일종으로 선뜻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간접인용법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별개의 것으로 떼어 내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 (1), (2)의 고-종결문은 1인칭 화자인 [나]가 청자인 [너]에게 주관적 감정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지금 [나] 이외의 다른)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간접인용 의미를 지니지는 않으므로 {X, Y, 말했다}가 복원되지 않는다.[2]

(1) 저 자식이 저래 뵈도 주먹은 세다구.
(「토지」 9: 349)
(2) 쿵이파리,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토지」 15: 145)

한편, 전지적 시점의 텍스트 자료에서는 '[X가 Y에게 [...]고 말했다]'의 인용문 구조가 직

1)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2) 실제 자료에서 '-고'의 수의적 교체형인 '-구'를 일괄하여 '고'라고 부르기로 한다.

접화법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소설 작품에서 흔히 보듯이, 인용부호 "..."으로 묶인 발화가 등장하고 그것의 전후에 {X, Y, 말했다}의 인용 구조가 자리잡아서 이야기 진행자의 나레이션이 개입한다. 다음 (3)에 나타낸 것처럼 직접화법의 발화 "!P"를 간접화법으로 전환시킬 때 [P-라고]의 인용절에 보문소 '고'가 도입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4a)와 (4b)의 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3)]

(3) ["!P", {X, Y, 말했다}] =
[X가 Y에게 [P-라고] 말했다]

(4) a. 불 꺼진지 오래된 머슴방에 불이 켜졌다. "*불은 와 키노.*" *누워 있던 돌이 머리를 쳐들고 물었다.*
"담배 한 대 꾸울라고." 삼수가 대답했다. (「토지」 1: 25)

b. 누워 있던 돌이 불은 와 키느냐고 (머리를 쳐들고) 물었다.

활자 매체를 통해 3인칭의 전지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가는 텍스트에서는 [X가 Y에게 [...]고 말했다]의 인용문이 빈번하게 출현하지만, 실제 일상에서 1인칭 화자인 [나]가 2인칭 청자인 [너]를 직접 대면하고 말할 때에는 다른 제3의 인물의 발화를 현재의 [나]가 다시 전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X, Y, 말했다}가 없이 '[...]고'의 명제가 직접적인 발화 형식으로 등장한다. (4)와 달리 (1), (2)의 고-종결문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할 뿐 간접인용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표면적인 문장 형식이 우연히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지니고 본래부터 독립된 부류들로 간주하는 것이고, 둘째, 동일한 성격의 기저구조에서부터 서로 다른 의미적 기능이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입장이 옳지 않고, 두 번째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고-종결문 발화 형식도 궁극적으로는 인용문에 준하는 기저구조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유사인용문'이라는 하나의 무리로 묶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화법 구조상의 제약을 설정한다.

화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화자가 의도하는 발언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화자가 '힘주어 말할 때'의 단언어법과 '누그러뜨려 말할 때'의 완곡어법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상위 개념으로 다음 2절에서 '관점문'과 '보고문'을 도입할 것이다.

인용문은 '보고문'의 성격만을 지니지만, 고-종결문 형식의 유사인용문은 '보고문'과 '관점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것임을 지적하고 '관점문'과 '보고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유사인용문의 발화 효과와 화자의 발언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나] 이외에 다른 3인칭의 주체, 사회적 구속력 등이 화자의 배경지식에 자리잡고 이것이 유사인용문 화자의 발언 동기에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단언어법'과 '완곡어법'이 각각 실현되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2. 단언과 완곡: 관점문과 보고문

유사인용문은 인식의 양태와 관련하여 화자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태도를 드러내준다. 화자가 '고'로 종결되는 유사인용문의 발화 형식을 사용할 때 취하는 발언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화자 자신이 진술하는 명제 내용에 대해 청자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힘을 주어 말하는

---

3) 혹은 다음 (1)에서처럼 {X, Y, 말했다}가 ". . ."의 내부에 자리하는 발화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2)의 형식에 대해 간접인용 의미를 완전하게 복원한다면 (3)에서 보듯이 [X가 Y에게 [P-라고] 말했다]의 간접인용절보다 더 상위의 개념 구조에서 <u>. . .는 사실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다</u>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1인칭 화자 [나]와 2인칭 청자 [너] 사이의 인용구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직접적인 층위에서의 인용 구조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1) ". . . <u>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u>. 석이형님이 며칠 전에 다녀갔<u>다고</u>." (「토지」 14: 83)

(2) "!P, {X, Y, 말했다}"

(3) [X가 Y에게 [...]고 말했다]는 사실을 (현재의 화자인)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다.

것이고, 두 번째, 화자가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에서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있겠지만 청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도 이상으로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누그러뜨려서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다음 (5)에서 '-다고' 종결문은 발화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배경지식에 비추어 볼 때 화자가 자신이 발화하는 내용이 부인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는 것을 단언하는 입장에서 진술한다. 반면 (6)은 단언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린 완곡 표현이라고 특징지울 수 있다. 그리고 (7)처럼 의문부사 '얼마나'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감탄의 의미가 뚜렷하다.

(5) a. 따지고 보면 그 땅이 누구 땅인데? 태고적부터 우리 땅이었다구. (「토지」 12:109)
b. 암, 암, 그것 틀림없는 일이라구. (「토지」 5: 105)

(6) 그런데, 자넨 참 대단하단 말야. 내 놀랬다구. 자넨 마치 사막이 완전히 체질인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 자네는 완전히 사막에 동화된 사람 같다구. 어떻게 삼개월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가지? <9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알제리,하씨 메싸우드」, 98. 1. 1. 46면 >

(7) 그 첩실이 얼마나 콧대 높은 기생이었다구요. 평양에선 제일이라 떠들던 여자인데... (「자유혼」: 124, 윤정선 희곡집)

화자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태도상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려면 우선 1인칭의 [나]가 문장 구조상에 자리잡을 때 차지하는 주어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장의 주어는 두 가지 역할을 겸할 수 있다: (i) 보고자(reporter) 역할, (ii)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한 참여자(participant)의 역할. 이러한 두 가지 역할에 대해 Lyons(1982)는 '주관적 경험주체'(subjective experiencing self)와 '객관적 관찰주체'(objective observing self)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보고문'(reported speech)과 '관점문'(subjective speech)의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보고문은 다른 곳에서 들은 말을 현재 화자의 발언 행위를 통해 다시 전하는 것이므로 3인칭의 출현이 빈번하다. 보고문의 화자는 제3의 존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상황의 내적 질서를 '객관적 관찰주체'로서 수용하고 이를 다시 청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관점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화자 자신이 진술하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이 반영된다.

{X, Y, 말했다}를 갖춘 간접인용문의 화법 구조는 전해 들은 말에 대한 보고문에 해당하지만, 유사인용문의 화법 구조는 화자가 주관적 관점을 드러내는 경우에 형성되며 보고문의 성격과 관점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를 다음 (8)처럼 구분할 수 있다.

(8)

	(간접)인용문	유사인용문
관 점 문	NO	YES or NO
보 고 문	YES	YES

'고'로 종결되는 형식의 유사인용문은 발화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화자 자신의 내면적 동기를 반영하여 힘주어 말하는 단언 어법과 누그러뜨려 말하는 완곡 어법의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 그리고 단언과 완곡의 어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다.

(9) 단언어법: 청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도에서 힘주어 말한다. 화자는 마음속에 담겨있는 심적 상태를 겉으로 드러낸다.

(10) 완곡어법: 화자 자신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을지라도 청자에게는 굳이 강도 있게 전달하기를 원치 않는다.

화자가 단언어법을 취할 때에는 자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만, 완곡어법에서는 다른 인식 주체들의 관점을 묵시적으로 반영하여 굳이 화자 한 사람만의 주관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객관적으로 인준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을 청자가 받아들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의 생각뿐 아니라 [나] 이외 다른 이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라는 인식을 청자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 유사인용문은 바로 이러한 화자의 발언 의도를 반영하는 발화 형식이 될 수 있다. 다음 (11)의 발화는 (12)를 전제로 하며, 다시 (13)처럼 인식 주체의 범위를 분할하여 하위의 명제들로 구분할 수 있다.

(11) 독도는 우리 땅이라구.
(12) [누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구 인식한다.
(13) [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구 인식한다, 그리고 [나 말고도] 아마 [모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구 인식한다.

여기 (11)의 유사인용문은 {X, Y, 말했다}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간접인용의 화법 구조에서 상위의 주어와 인용동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자인 [나]의 주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 . .한 의견을 갖는다.'는 인식양태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상위의 술어로 설정할 수 있다.

표면의 발화 형식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복원되는 요소들로 '담화주어'와 '상위술어'를 인정하면 유사인용문의 발화 형식과 의미적 구성 사이의 대응 관계를 (14)처럼 설정할 수 있다. 표면의 발화 형식에 없는 ∅에 대응하여 담화주어는 {[나], [나 말고도]}를 구성원으로 하며, 상위술어는 [나]에 대응하는 인식술어뿐 아니라 [나 말고도]에 대응하는 인식술어들이 가능하다.

(14)

∅	[문장주어 술어부]	∅
담화주어	[문장주어 술어부]	상위술어
[나]	----------	인식술어
[나 말고도]	----------	인식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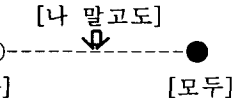
담화주어는 '확신의 지지자'이며 (15)처럼 구성원을 갖는다. 화자의 주관성의 정도는 화자가 명제 내용의 진실성이나 책임 소재에 개입하는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자가 전체로 지니는 정보의 범위 차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정되는 것이지 이분적으로 주관성과 객관성의 경계선을 구분할 수는 없다.

(15) 확신의 지지자 = <[나], [나 말고도]>

(16)처럼 고려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으로 [모두]를 설정하면, [나 말고도]가 (17)에서 보듯이 양쪽 극단 사이에서 적정 위치에 지표 설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여기에서 [나 말고도]가 나타내는 개체 집합은 분할될 수 있다. 즉, 발화 장면에서 화자가 취하는 주관적 관점에 따라 '확신의 지지자' 집합은 분할되고, 다시 청자의 해석에 의하여 열거될 수 있다.

(16) [모두] = {[나] ∪ [나 말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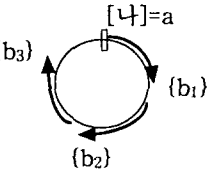
(17)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에 대해 청자도 순응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화자가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때, [나]는 [너]에게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것이 청자에게 사회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17)의 지표 설정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를 구성하는 개체 집합 중에서 선택된 개체들의 멱집합(power set)을 뜻하며, 이때 모형론적 지표 설정을 위한 환경 설정과 실제 화자의 발언 동기를 등치의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의 선형상의 지표 설정을 다음 (18)처럼 원형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보자. (19a)처럼 고려 대상의 개체를 잡는다면, (19b)에 주어진 멱집합이 청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구속력이 될 것이다.

(18)



(19) a. [나 말고도] = {b_1, b_2, b_3}
b. Power Set([나], [나 말고도]) =
{ {a}, {a, b_1}, {a, b_2}, {a, b_3},
{a, b_1, b_2}, {a, b_2, b_3},
{a, b_3, b_1}, {a, b_1, b_2, b_3}, . . . }

단순한 인용의 보고문이라면 발언 주체가 (20)에서 보듯이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만, 화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관점문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집단의 종류나 크기가 워낙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장 단순화시켜서 (21)처럼 [나] 이외에 모든 인물들을 [나 말고도]라는 대상으로 일단 묶을 수 있다.

(20) 보고문 = [X]가 [...](라)고 말했다.
([X] ∈ {[나], [너], [그 이]})
(21) a. 1st 담화주어에 의한 관점문 =
[나]는 [...](라)고 인식한다.
b. 2nd 담화주어에 의한 관점문 =
[나 말고도] [...](라)고 인식한다.

'고'로 종결되는 유사인용문에 결부되어 있는 화자의 단언 의도는 [나]와 [나 말고도]의 양측에 걸쳐서 성립하므로, 이들에 대한 결합이나 분할이 연접(conjun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접(disjun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명제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명제 집합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현재 화자가 발언한 명제 내용의 진실성을 옹호해 주는 배경지식이 되며 청자가 이를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면 화자가 본래 지녔던 발언 의도가 성취된다.

힘주어 말하는 어투일 때에 화자는 자신이 발화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꺼이 신뢰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낸다. 혹은 자신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자도 그런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예상하면서도 청자의 명분을 존중하기 위해 완곡하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나 말고도]의 지지에 의존하여 명제 내용의 확실성이나 당연함을 단언할 수 있다. 힘주어 말하는 단언어법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 전경(foreground)으로 부각된다. 유사인용문의 명제 내용에 대해 [나]와 [나 말고도]가 각각 개입하는 정도를 전경화 시킴에 의해 주관적 관점이 설정되며 이를 다음 (22)처럼 구분할 수 있다.

(22)

관 점 문	단 언	완 곡	
[나]는 [P-라고] [인식]한다.	YES	YES	NO
[나 말고도] [P-라고] [인식]한다.	YES	NO	YES

단언 행위는 [나]와 [나 말고도]의 주관이 모두 부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나]의 생각이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완곡의 어법은 [나]의 관점만을 드러내어 감탄의 의미 기능을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나]의 관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 인용문의 의미적 틀을 다음 (23)처럼 정의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유사인용문의 의미적 틀은 (24)처럼 정의할 수 있다.

(23) 인용문:
< [X가, Y에게, 말했다], [...]고 >
(X=본래화자, Y=본래청자)
(24) 유사인용문:
< [△, 인식한다], [...]고 >
(△={[나] ∪ [나 말고도]})

인용문은 발화 행위의 주체를 찾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지적 시점의 상황 묘사나 제3자의 말을 전할 때에 {X, Y, 말했다}의 인용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화자의 주관을 반영하는 유사인용문은 인식 주체의 자유 의사를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다.

(24)에서 '△={[나]}'일 때에는 [나]의 주관적이고 고집스러운 견해가 부각되기도 하며, '△={[나 말고도]}'일 때에는 다른 제3의 인물의 주관을 이끌어들임으로 해서 사회적 권위나 위계에 비추어 발언 내용의 진지성을 내세우게 된다.

단순한 인용문은 명제 내용을 말하는 행위의 주체로 특정인을 지정한다. 표면의 발화 형식에서 {X가, Y에게, 말했다}를 갖추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화의 현장에서 청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나레이

션 텍스트에서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을 출처로 삼아 전하는 말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에 비해, 유사인용문은 인식의 주체를 지정한다. 주어진 발화의 맥락에서 청자가 복원하는 부분은 {X가, Y에게, 말했다}가 아니라 [△={[나] ∪ [나 말고도]}]의 인지적 상태에 관한 것이다. 이때 화자의 발언 의도는 [△={[나] ∪ [나 말고도]}]가 분할되는 방식에 달려 있고, 화자의 발언 행위에 대해 청자가 {[나] ∪ [나 말고도]}의 부분집합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화자의 단언 의도가 실현된다.

[나]와 [나 말고도] 사이에서 가장 단순한 대응을 다음 (25)처럼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화자의 발언 의도에 따라 단언과 완곡의 차이가 드러난다.

(25)

[나], [~~나 말고도~~]	나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완전한 동의가 없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나], [나 말고도]	나의 주관적 견해는 (굳이 내가 적극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서 뒷받침 받을 만한 것이다.
[~~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편이므로 나도 동조해야할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 . .

여기 (25)와 같은 관점문의 하위 부류들에 대해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정의할 수 있다. 화자가 주관을 담아서 '힘주어 말할 때'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의 영역에서 [나]의 해석이 결정되며, 주관을 덜 강하게 드러내면서 '완곡하게 말할 때'는 의무양태(deontic modality)의 영역에서 [나]의 해석이 결정된다.

'힘주어 말할 때'와 '완곡하게 말할 때'는 반드시 이분론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장면에서 화자가 드러내는 운율적 요소의 실현에 따라 정도의 차이로 결정될 사항이다.

3. 1인칭 화자의 의식

앞의 2절의 논의는 1인칭 화자 [나]와 제3의 지지자들인 [나 말고도]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인칭의 화자가 취하는 관점은 발화의 장면 설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3절에서는 [나]의 내면의식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인칭 화자의 의식에 자리잡은 생각을 끄집어내어 말할 때에,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혼용된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이 동장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메아리 질문'(echo question)에서는 선행발화에 나타난 인칭 대명사가 메아리 질문 화자의 시점과 선행발화자의 시점의 양쪽에서 선택적인 분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간접화법'의 성격을 띤다.

다음 (26)에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는 바로 직전의 선행발화를 되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의 과거에 이루어졌던 발화를 들추어내는 것인데, 선행발화와 메아리 질문이 동일한 시기, 동일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유지하지 않는 입장에 선다면 이 경우도 메아리 질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26) 철: . . . 허지만 이 지구 상엔 너같이 나쁜 년은 없을걸. *6.25전에 넌 내게 뭐라고 맹세했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 소린 아직 내 귀에 쟁쟁해. 그런데도 넌 날 배반했어? . . .(「한강은 흐른다」: 210, 현대대표희곡선집 2)

(26)의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에서 '*나*'는 현재 시점의 화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선행발화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인칭 '*나*'가 (2인칭 '*너*'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직접화법의 성격을 보여준다. 앞에 나타난 발화 '*6.25전에 넌 내게 뭐라고 말했지?*'와 비교해 보아도, 현재 화자의 1인칭 시점과 예전 선행발화자의 1인칭 시점이 공존하는 자유간접화법에 해당한다. 만약 1인칭 대신에 2인칭이 도입되어 '*너는 나의 아내가 되겠다고?*'로 나타났다면 이는 간접화법에 해당한다.

화자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는 생각을 실

제 발화로 끄집어낼 때 유사인용문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간접화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흔한 일이다. (27a)는 (27b)와 비교하여 볼 때 직접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비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진술하는 것이다. 화자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발화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을 연상시켜 보고 자신이 발화하는 내용이 이유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28)의 '[...]고' 종결 형식의 발화는 부정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을 진리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내용의 단정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27) a. 그런 소리 하지 말라구.
b. 그런 소리 하지 마.
(28) a. 그게 아니라 이거라구.
b. 'declarative sentence'에 대한 용어는 '서술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라구.

다음 (29)에서 보듯이 속담처럼 정형화된 표현을 인용하면서 '-다고' 종결 형태를 취하면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여 강조의 의미를 부각시킨다.[4] (30a)처럼 '-다더니'에 의한 인용은 혼자말이거나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지만, (30b)처럼 '-다고'에 의한 인용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단정적 의미를 비교적 뚜렷하게 전달한다.

(29) a. 부엉이소리도 제가 듣기에는 좋다고.
b.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구. 우리도 여기서 한 숨 돌리고 갑시다.
(30) a.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b.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구.

Benveniste (1971)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1인칭 대명사는 개체를 나타내기에 앞서 개별적 담화 행위를 직시하여 주고 화자를 지정하여 준다. 발화 주체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등장하는 1인칭 대명사는 그것이 사용되는 개별 담화 행위상에서 화자의 위상을 지정해주고 이런 점에서 3인칭 대명사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5] 보고문과 관점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관 점 문	보 고 문
주어의 시점	1인칭	주로 3인칭
주체의 시점	1인칭	1인칭
간접 인용	아니다	복원된다
단언 강도	드러낸다	잘 안 드러낸다
복원 의미	인식술어	인용술어
보고자와 참여자	1인칭이 모두 겸한다	1인칭 보고자 3인칭 참여자
발화 주체의 개입성	경험과 관찰을 겸한다	관찰만 한다
[나]의 적극적 의지	책임을 짊어진다	다른 데에 책임 돌린다
발화 신뢰도에 대한 책임의식	많이 의식한다	별로 의식 않는다

4. 결 론

[X가 Y에게 [...]고 말했다]의 인용문 구조에서 {X, Y, 말했다}의 형식은 전지적 시점의 텍스트 나레이션과 실제 얼굴을 마주 대한 대화체 자료에서 사용 빈도의 차이가 많다. 화자가 청자에게 '-다고'로 종결되는 발화 형식을 도입할 때, '말하다' 동사 이외에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를 내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담화상의 주어로 [나]와 [나 말고도]가 결부되어 있다고 봄에 의해 '유사인용문'의 화법 구조를 '인용문'의 구조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

표면의 발화 형식이 같지만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완전히 독립된 부류이어서가 아니라 기저의 화법 구조에 화자의 관점이 설정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면, 관점문과 보고문 개념에 대응하여 단언어법과 완곡어법을 정

4) (30b)의 발화 기능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일 가능성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사절의 '-다고' 종결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5) 화행 이론에서도 *"(I/*He) pronounce you man and wife."*의 유명한 예를 들면서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이행문(performative)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의할 수 있다.

1인칭의 [나] 이외에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한다는 것을 내비침으로 해서 제3자의 인식, 사회적 구속력이 화자의 발언 의도를 형성하였음을 청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때 화자가 고려하는 개체 집합은 화자가 취하는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분할될 수 있고 청자의 인식 범위에서 열거될 수 있다.

유사인용문의 화법 구조를 1인칭 화자 [나]가 개입하는 정도의 위계에 따라 세분하여 양태논리의 가능세계에서 더 엄밀하게 정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 문헌

[1] 김종현. 한국어의 메아리 질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2] 남기심.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한국학 연구총서 1,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3.

[3] 박경리. 「토지」. 1권~16권, 솔 출판사, 1993.

[4] Banfield A. *Unspeakable Sentences: Narr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Language of Fiction*,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2

[5] Benveniste E.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Coral Gables: University of Miami Press. 1971.

[6] Chafe W. and Nichols J. 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Norwood: Ablex Pub.

[7] Fludernik M. *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 of Fiction: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peech and Consciousn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8] Iwasaki S. *Subjec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a case of Japanese Spoke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993.

[9] Janssen T. and van der Wurff W. *Reported Speech*, Amsterdam: John Benjamins, 1996.

[10] Lyons, J. "Deixis and Subjectivity: Loguor, ergo sum?," Jarvella R. and Klein W. eds. *Speech, Place and Action: Studies in Deixis and Related Topics*, 1982.